

성탄절 특집

성모님의 태몽과 새벽별 이름, 조현 선생의 예언

영적 예루살렘 소사(素砂)에 양력 8월 12일 성탄절이 이르니, 때는 이천삼년 여름이라. 주님께서 성전 안 2층 집무실에 계시니,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찾아뵙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십시오"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 2003. 8. 12. 승리제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재조명한 것임



『진지이동TV』 <https://youtu.be/YCPZK9ZR68c>

성모님의 태몽

조희성님의 모친께서는 조희성님을 잉태하시기 전에 이러한 꿈을 꾸셨다. 어떤 사람이 계양산(桂陽山: 인천 부평 소재)에서 모친을 향해 손짓을 하며 자기한테 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흰옷을 입은 선녀들 10여 명이 하늘에서 날아와 모친에게로 내려왔다.

그 선녀들은 성모님 주위를 에워싼 후 빙빙 돌더니 일제히 성모님을 향해 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모친은 깜짝 놀라 "어떤 연고로 그러시느냐"고 하니 선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태중에 계신 분은 인류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을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할 위대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중에 계신 그분을 향해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옥체를 잘 보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이런 꿈도 꾸었다. 부평읍에서 서쪽으로 5리쯤 가면 계양산이 있는데, 이 산은 예로부터 명산으로서 많은 전설을 지니고 있는 산이다. 하루는 꿈에 계양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산봉우리가 셋이 있고

가운데 큰 봉우리의 정상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거기 있는 맑은 물이 근원이 되어 옥수(玉水)같이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 거기에는 편편하고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깨끗한 물동이에 바가지가 놓여 있어서, 이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물동이에 가득 채워 놓으니, 어디선지 하얀 비둘기가 날아와 물동이 위에 앉았다. 모친은 그대로 물동이를 이고 감정리 집으로 내려왔다.

며칠 후에 다시 그 산을 올라가니 낯선 청년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쪽을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니 새하얀 옷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한 처녀들이 30여 명 줄지어 걸어오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기이하기도 하여 그 청년에게 "저 처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고 물으니, "당신을 하늘나라로 안내하기 위하여 환영 나온 선녀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참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함을 느끼며 산에서 내려왔다. 또 하루는 어느 동산에 올라갔는데 큰 옥수수대가 둘 있고 잘 영글은 옥수수가 한 대에 한 개씩 열려 있었다. 옥수수

를 모두 따 자루에 담으니 자루 두 개가 가득하여 그것을 또한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장차 아이가 태어나서 성공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절대로 꿈에서 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친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시다가 조희성님이 밀실에서 연단을 받고 완성자가 되어 영생(永生)의 역사를 시작한 1981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주님에게 말씀해주셨다.

천도교인이자 한학자인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의 이름을 짓다

조희성님은 경기도 김포군 감정리에서 1931년 8월 12일(음력 6월 28일 새벽 4시경) 농부이신 부친 조경남(曹慶男)과 모친 오지덕(吳志德)사이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런데 증조부께서도 형제 두 분 중 둘째였고, 조부와 부친께서도 역시 둘째였으며 조희성님 대에 와서도 남자 5형제 중 둘째였으니, 4대를 계속해서 차자(次子)로 이어져온 것이다.

조희성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할아버지께 들어서 알고 있었다. 외갓집이 부평 '덴밭'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

면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린 손자를 업으시거나 손을 잡으시고 장능산 지름길 다니시기를 좋아하셨으며,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필요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그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를 지지 말아야 한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냥 나오지 말고 엽전 한 닢이라도 놓고 나와야 한다."라고 훈육하셨다. 외할머니께서 "이 영감께서 매일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오느냐?"고 성화를 부리셔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책만 보며 잠자코 계시면서 언행을 흐뜨리지 않으셨다고 한다.

외조부께서는 한문책을 마차에 싣고 산속의 절에 가서 다 읽으시곤 집으로 내려오시곤 했다. 한학자요 미국유학을 마치고 오신 분으로 영어회화도 잘하셨다. 외손자 조희성님은 이런 외할아버지께서 천도교인(天道敎人)이셨다는 것을 한참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지내시던 외할아버지는 부평에서 김포 부락까지 약 30리가 넘는 거리를 늘 걸어서 왕래하시면서 외손자를 업고 다녔다. 외할아버지 댁 뒤뜰에 석청 풀을 내는 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때마다 석청 풀을 따는데, 그 석청을 들고 김포 외손자 집까지 갖다주시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이 풀은 아무도 주지 말아라. 둘째 아들 희성이한테만 주어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외손자를 아끼고 사랑하셨다.

주님의 외조부는 철학뿐만 아니라 사주팔자를 푸는 것도 잘하셨다. 외할아버지는 외손자가 신미생(1931년생)으로 태어났고 양피 달(음력 6월)과 별수 날(음력 28일) 그리고 새벽 4시에 태어났으니까 으뜸 원(元)자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립임을 아셨다. 2면에서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3> "예수는 성령과 상관 없는 자이다"

예수가 밤새도록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달라고 셋새마네 동산에서 바위를 부둥켜안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던 것이다.

통달하게 되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아야 성령으로 잉태된 자인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고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예수가 아직 영광(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상반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예수는 성령과 상관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기는 삶

겸손

꿈이 큰 사람들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대한다. 남을 높인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겸손함은 그 사람의 꿈의 크기다. 지금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크게 성장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겸손해야 할 것이다.

성공이라 할지라도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겸손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너그러우며 호감이 가고, 남의 호의에 감사할 줄 알고, 협조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성향 덕에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친구가 더 많으며 애정 넘치는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겸손은 뛰어난 리더십을 뒷받침하고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반면 재능이 뛰어나고 겸손한 사람은 이타적(利他的)이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이는 그의 뛰어난 재능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 됨됨이에 마음으로부터 그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함을 갖추어야 한다.

흥미롭게도 혹독한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험그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밑바닥 생활이 길었다는 것,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것, 그리고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려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인생 또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다.

재능이 같아도 겸손은 갑질이다. 칼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칼은 적도 베지만 나도 베일 수 있다. 칼은 필요할 때 써야 하지만, 칼집에 넣어두는 것도 꼭 필요하다. 재능은 자신을 현재의 위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도록 해준다. 이때 겸손은 시기를 막아내고 견제를 제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해준다. 또한 겸손은 귀와 눈을 겸허하게 열어 놓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고 분발하게끔 한다. 그래서 재능만 있는 이는 현재 완료형에 머물지만, 겸손을 겸비한 이는 미래를 향해 진행형으로 날 발전한다.

뛰어난 재능은 인물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재능이 뛰어나지만 교만한 사람은 매사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성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상사라면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대로 따르기는 하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잘난척하는 사람은 적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학벌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서 빠르게 쌓아 올린

같일이 막막한 순간에도, 자신을 한발 더 나가도록 해주는 힘이 겸손이다. 자신을 낮추고 비웃을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슬기가 생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다. 그러나 재능과 겸손은 어느 정도까지는 학습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고난 본성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은 종교적 힘이나 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겸손은 땅과 같다. 밟히고 쓰레기까지 받아들여지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게 하기 때문이다.*

구세주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세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긴자로 승리하는 날도 없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성탄절이 가장 큰 절기이지만 성탄절도 역시 중요한 절기라고 하셨다.

승리제단 식구들이 성탄절을 뜻깊은 절기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탄강하시어 구세주 이긴자가 되기까지의 발자취 과정을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필요성이 느껴진다. 왜냐하면 주님 탄생의 목적은 6천 년간의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연단의 연단을 거듭해왔던 이기는 핏줄기를 타고 사망 권세를 잡은 대장 마귀와의 마지막 결전을 위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1931년 8월 12일에 탄생 이후부터 이긴자가 되기까지

의 연단은 무서운 정도로 가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숙원 문제였던 예멘동산 회복도 불가능하고 하나님도 끝장나는 동시에 인류 멸망뿐만 아니라 우주도 파괴되어 생명체라곤 하나도 없는 암흑천지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럼 주님 탄생 이후의 발자취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0대 때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사리 같은 손으로도 풀잎을 다녔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고 장터로 나가 땀감을 팔았다. 10대 후반에는 성당과 비누 장사로 고학하면서 시골에 농사짓는 동창생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학비를 대면서 길을 열어 주었다.

625전쟁이 일어난 20대에는 인민군 포로가 되어 고향 김포에 숨어지내는 경찰관 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고혈을 깨물자 곡갱이 자루가 서너 개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고 깨부러졌다. 철사줄에 두 손 꽂고 묶인 채 마야리 고개를 넘어 북으로 끌려갔다.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 갇혔다가 평양 서포 뒷동산에서 우국지사들과 함께 총살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사일생하였다. 이밖에 거제도 포로생활과 광주 상무대 훈련소에서 간부후보생으로서 받아야 했던 무서운 연단 그리고 장교로 임관되어 전쟁과 가난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병들을 모아 중·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쳤다. 허약한 사병을 위해 장교식사를 양보하면서 11년간 장교생활하면서 거의 소금국과 보리밥으로 된 사병식단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희생으로 일관되었다.*



구세주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한국 땅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한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 겠다.
4. 한국에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겠다.
5. 한반도에서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